



2014년 9월 16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협력과 최철호 과장(043-870-5560), 강영식 연구사(043-870-5563)
국제표준과 정기원 과장(043-870-5350), 김창용 연구사(043-870-5353)

브라질 수출 쉬워진다! 현지에서 인증획득 서비스 받을 수 있다.

- 한-브라질 표준인증협력센터 개소 -

- 브라질 국제표준화기구(ISO) 총회에서 2015년 국제표준화기구(ISO) 서울총회 홍보 -

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브라질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현지 기술규제, 인증획득 절차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, 한-브라질 표준인증 협력센터를 브라질 국립계량품질기술원(INMETRO*) 안에 개설함.(9.11일)
- 한-브라질 표준인증 협력센터에 우리 측 전문가(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** 소속 1명)를 파견함.
 - * 국립계량품질기술원(INMETRO: National Institute of Metrology, Quality and Technology): 세계무역기구(WTO)/기술규제(TBT) 공식 질의처, 교정·시험·검사·인증기관 인정 등 국가기술표준원과 같은 브라질 정부기관
 - **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: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, 인증표준콜센터(1381)를 운영하고 있는 시험인증기관으로, 수출 국가별·품목별 인증제도 및 취득 절차 등의 안내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음
- 브라질은 우리나라의 12위 수출국('13년, 한국무역협회)이며, 브라질·러시아·인도·중국·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경제 5국에서 무역기술장벽(TBT*)통보가 가장 많은 국가(중국제외)로,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, 휴대폰, 가전 등에 대한 기술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.
 - * TBT(Technical Barriers to Trade, 무역기술장벽): 기술기준, 표준,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국가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으로 형성되는 것
 - ** '13년 주요교역국 무역기술장벽(TBT) 통보현황(건) : 미국(103), 유럽연합(EU)(93), 중국(88), 브라질(50), 한국(44)

-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브라질 강제인증에 대한 정보부족과 복잡한 인증절차 등 브라질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, 한-브라질 표준인증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인증표준콜센터(1381)와 코트라 브라질 무역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찾아 해소해 나갈 예정임.

□ 현지 센터 개소식 함께, 한-브 양국의 표준·인증제도에 대한 상호간 정보교류를 위한 한-브 기술표준 공동워크숍도 개최함(9. 15.)

- 워크숍은 국가기술표준원-브라질 국립계량품질기술원(INMETRO)의 표준·인증분야 협력 양해각서(MOU)('12년 체결)의 후속조치로, 국가기술표준원, 중소기업청, 한국표준협회,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,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우리 기술표준 인프라와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발표함
- 다음 공동워크숍은 브라질의 기술표준인프라 등 인증·기술규제 관련 주제로 '15년도 상반기에 한국에서 개최함.

□ 또한 자동차 부품 등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브라질 인증을 신속·편리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, 우리 인증기관과 브라질 인증기관이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함

- 양국 시험기관간 업무협약(MOU)을 통해, 국내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브라질 인증기관이 인정하고, 공장심사를 우리 시험기관이 대행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, 장기적으로 브라질 인증획득을 한 번에 해결하도록 할 계획임

** 전기기기·통신기기·생활용품 및 자동차 부품 등 인증 업무협약 체결(9.17):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- 브라질 인증협회(NCC), 팔콘바우어 품질연구원(IFBQ)

□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성시헌)은 브라질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페루, 에콰도르 등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중남미 지역으로 기술규제

대응체계를 확대·구축해 나갈 계획임.

- 한편, 성시헌 원장은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제37차 국제표준화기구(ISO) 총회(9. 8. ~ 9. 12.)에 참석하여,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국제표준화기구(ISO) 서울총회를 홍보하고 세계 각국 대표를 정식으로 초청함.
- 우리나라는 1963년 국제표준화기구(ISO) 총회에 가입 이후 처음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, 내년 총회에서 자동차·조선·반도체 등 세계 최고 제품을 만들고 있는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임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협력과 강영식 연구사(☎043-870-5563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

< 참고 >

□ ISO 국제표준화기구 현황

- 공식명칭: 국제표준화기구(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for Organization)
- 설립년도 : 1947년 발족
- 회원국: 총 163개국(정회원 114개국, 준회원 45개국, 구독회원 4개국)
- 우리나라는 ISO 이사국으로 자국의 입장과 의견을 국제표준화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음
 - * ISO 이사회는 ISO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로써, 미국, 독일, 일본, 영국, 프랑스, 중국, 러시아 등 20개국으로 구성
- 우리나라는 ISO 회원국간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2015년 ISO 총회 유치(서울)를 확정하였음
 - * ISO 총회 개최지: '11(인도), '12(미국), '13(러시아), '14(브라질)
 - 서울에서 ISO총회를 개최할 경우, 해외에서 개최되어 ISO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아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

□ ISO 총회 유치 추진경과

- '12년 총회시(미국 샌디에고) 서울 개최 협의('12.9월)
- '13년 총회에서 공식 유치 확정('13년 상반기)

□ 국제표준 현황

- ISO·IEC·ITU의 3대 국제표준화기구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계의 의견반영
 - 우리나라는 그간 적극적인 국제표준화활동으로, 아국 의견반영에 핵심적인 임원인 간사(secretary) 수입 순위가 ISO 세계 10위, IEC 세계 8위

< ISO·IEC 임원 현황, '14.8월 기준 >

구 분	국제의장	국제간사	컨비너	계
계	16명	25명	107명	149명
ISO	15명	21명	81명	117명
IEC	1명	4명	26명	32명